

민학적 감성으로 노래하는 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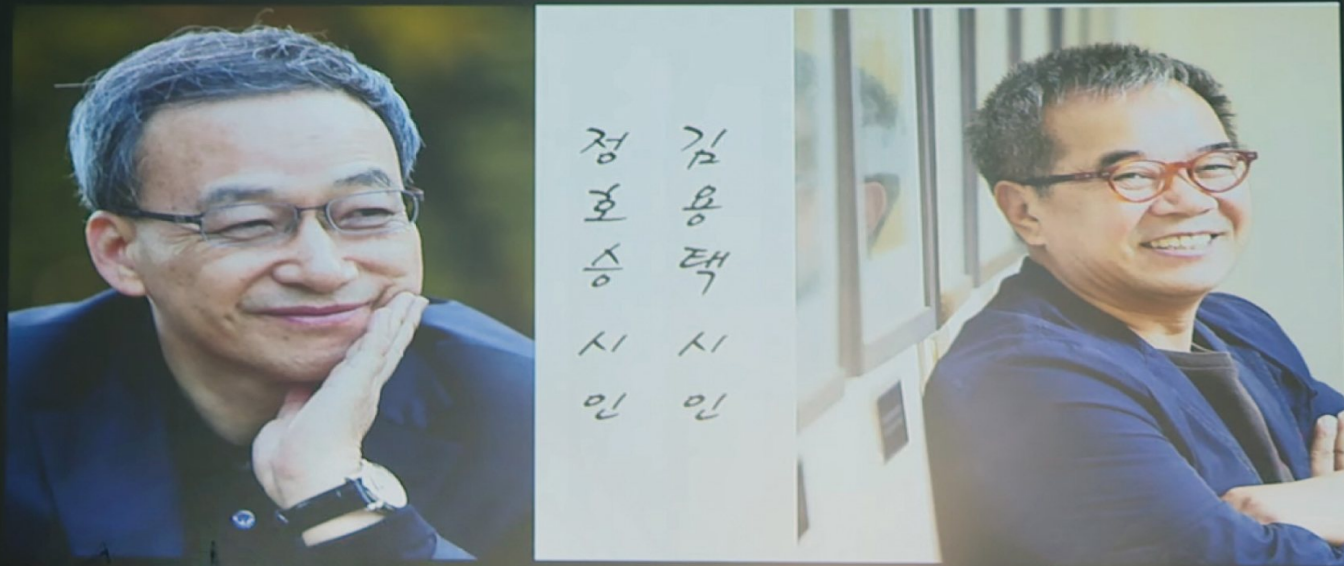
책 의 노래

서 울

書 글에 음울 더하니

律 세상의 노래가 되었네

서 울



Recommendation

서울의 음악은 삶을 긍정하고 사람을 긍정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이철환** 소설가 제 시 노래,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중에 서울 밴드의 음악을 가장 좋아합니다. **김용택** 시인 서울의 노래를 들으면 책의 감동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이용훈**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 노래에 귀를 기울이면 시는 가슴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정호승** 시인

서울 書律

책을
노래
하다

책의노래 서울(書律)은 문학적 감성을 담아 노래하는 밴드이다. 문학에서 접할 수 있는 내면의 철학적 성찰, 진정한 사랑의 의미,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소소한 풍경 등을 음악으로 풀어낸다. 2010년 결성된 이래 따뜻하면서도 감성적인 어쿠스틱 사운드를 바탕으로 장르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창작곡들을 선보이고 있다.

서울의 음악은 팝, 락, 스윙, 보사노바, 포크 등 다양한 장르들과의 결합을 통해 사운드의 다양성을 확보한다. 가사는 한 편의 시 같은 은유, 섬세하고 진중한 표현으로 서정성과 깊이를 더한다. 이러한 시도는 여러 작가들의 지지와 호응을 얻어 정호승, 김용택, 이문재, 김재진, 문태준, 오은 등 여러 시인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시와 음악을 결합한 새로운 곡과 무대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대중성과 예술성을 고루 갖춘 서울은 MBC <TV 문화사색>, <한겨레>, <조선일보> 등 유수의 언론에서 주목 받으며 음악계에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스트링의 깊이를 더한 클래식한 정규 2집 재즈와 어쿠스틱 크로스 오버로 완성된 책과 시를 노래한 디지털 싱글들을 통해 텍스트의 음울을 완성한다. 900회가 넘는 북콘서트를 비롯해 최근에는 <다시, 봄>과 <어쿠스틱 베케이션>, <건강한 인문학 콘서트> 등의 콘서트가 우수공연으로 선정되어 대중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서울 書律



HISTORY

Since 2010



2019

- 정재승 교수 & 노경수 작가 범시민 한 책 읽기 선포식 진행 및 공연 | 서산시청
-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서울 밴드 <노래가 된 문장들> | 부산동래문화회관
- EBS FM 라디오 <책으로 행복한 12시>매주 목요일 2부 “현상필의 당선 곁에 인문학” 진행
- 산림청 격월간지 <매거진 숲> 전문가 서평 연재
- 문화다양성 <우리는 모두 완득이다> 책의 노래 콘서트 | 은평문화예술회관
- 제주 해비치아트스티벌 제주인 페스티벌 선정 | 해비치호텔 다량쉬 외
- 교육청 공무원 대상 연수프로그램 북콘서트 | 사천KB인재니움 연수원 외 다수
- 날마다 도서관을 상상해 <유승하, 창비> 만화 출판기념회 | 구산동도서관마을
- 전국으로 찾아가는 북콘서트 <건강한 인문학 콘서트>
- 전국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인문학<진로를 선택하는 5가지 질문, 콘서트>
- 서울시 산마루놀이터 개장 기념 어린이 북콘서트
- 디지털 싱글 <우리는 서로에게 > (문태준 시) 발표
- 서산시 한 책 읽기 독서토론회 진행 외 다수

2018

- 도서관이 찾아가는 인문콘서트 | 국립충북대학교병원 서관 직지홀
- 포항공과대학교 문화프로그램 | 서울밴드 & 정여울 작가 인문학 콘서트
- 창녕문화예술회관 <서울밴드 새로운 길 콘서트
- EBS FM 라디오 <책으로 행복한 12시>매주 목요일 2부 “현상필의 당선 곁에 인문학” 진행
- 국립중앙도서관 월간지 <오늘의 도서관> ‘전문가 서평’ 연재
- 양산인문학한마당 <서울밴드 건강한 인문학> 북콘서트
- 천안시 북페스티벌 <한밤중 달빛식당 & 푸른 늑대의 파수꾼 콘서트> (with 이분희 작가, 김은진 작가)
- 도솔공원 파크 콘서트 <천안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밴드 인문학 콘서트>
- 디지털싱글 <새로운 길> (윤동주 시) 발표
- 디지털싱글 <달이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김용택 시) 발표
- 전시회 <가까이에 시 한편> 북콘서트 (with 김언 시인) | 국립세종도서관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청, 도서관 대상 <서울밴드 인문학 북콘서트>
- 문학순회 발굴형 선정 인문학 콘서트<나를 찾아가는 여행> 순회 공연
- 오송인문학페스티벌 <정호승 시인과 함께하는 서울밴드 콘서트> | 오송종합복지관
- 밀양교육지원청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콘서트> | 밀양시청소년수련관
- 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콘서트>

2017

- 광화문 1번가 <대통령의 서재> 북콘서트 | 주최: 한국도서관협회
- 육해공군본부 2017 북콘서트 (WITH 이철환 작가) | 계룡대 대강당
-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서울밴드 북콘서트
- 2017 세계책의 날 북콘서트 | 서울시청 광장
- 정동야행 | 음악과 무용으로 만나는 시인, <김소월 & 윤동주 북콘서트> | 서울도서관
- 대한민국 독서대전 서울밴드 북콘서트
- 서울 단독 콘서트 <다시, 봄> | 화강문화센터
- <문태준 시인과 함께하는 서울밴드 북콘서트 | 고성문화체육센터

2017

- <문태준 시인과 함께하는 서울밴드 북콘서트 | 고성문화체육센터
- <2017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공연 선정
- 대덕문화전당 서울 콘서트 다시. 봄 | 초대 시인: 김용택
- 울산문화예술회관 서울 단독 콘서트 <다시, 봄>
- 남구문화예술회관 <이병률 시인과 함께하는 서울밴드 북콘서트 >
- 신천사편지 발간 기념 북콘서트
- 포항공과대학교 문화프로그램 | 성석제 작가 & 서울 밴드 인문학 콘서트
- 문학순회 발굴형 선정 인문학 콘서트 <나를 찾아가는 여행> 순회 공연
- 반디앤루니스 롯데백화점 수원점 <이철환 작가 & 서울밴드> 북콘서트
- EBSFM 라디오 <책으로 행복한 12시> 매주 목요일 2부 “현상필의 당신 곁에 인문학” 진행

2016

- 극동대학교 <주호민 만화작가 & 서울 밴드 북콘서트>
- 양평문화원 <성석제 작가 & 서울 밴드 북콘서트>
- 서천교육지원청 <청소년을 위한 서울 인문학 콘서트>
- 2016 인천 인문학 콘서트 <나를 찾아가는 인문학 여행>
- 콘서트 <다시, 봄> | 고령군 대가야 문화누리, 서천문예의전당 (<2016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공연 선정)
- 정목스님 & 김재진 시인과 함께하는 <유나방송 벚꽃음악회>
- 21세기박스 주최 <Book 앤 樂 콘서트> | 현대백화점 신촌 유플렉스 문화홀
- 정호승 시인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 경주예술의전당
- 콘서트 <어쿠스틱 베케이션> | 은평문화예술회관

2015

- 정규 2집 <그랑투르_바람과 길과 눈> 발표
- 서울 단독 콘서트 <다시, 봄> | 흰물결아트센터 화이트홀 (한국콘텐츠진흥원 <3차 대중음악 지원사업> 우수공연 선정)
- 콘서트 <어쿠스틱 베케이션> | 올릭픽홀 뮤즈라이브
- 도서관에서 만난 문화가 있는 수요일 | 수원시 도서관 순회공연
- 정목스님 & 김재진 시인과 함께하는 <유나방송 벚꽃음악회>
- 성공회대학교 LOVE 북콘서트
- 구로구청 책선포식 북콘서트 “초대작가: 안소영”
- 소설가 박범신 & 서울 <울산 THE 콘서트>
- 안도현 시인과 함께하는 포엠콘서트
- 충북학생교육문화원 북콘서트 외 다수

2014

- 철학자 강신주와 함께하는 렉처콘서트 (서울시설관리공단)
- 관광활성화 연계 우수공연 선정 <음악기행 시인의 마을>
- 박원순시장참석 서울책방 재개관 기념 축하공연 (서울신청사)
- 김용택 시인과 함께하는 북콘서트 | 강북문화예술회관
- 경기도인재개발원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북콘서트
- 헌법재판소 도서관 북콘서트 · 의정부연수원 북콘서트 외 다수

2013

- 정규 1집 <책, 노래가 되다> 발표
- 김재진 시인 <나의 치유는 너다> 출간기념 음악회 | KT제임버홀
- 부천복사골축제 <2013 부천의 책> 선포식 북콘서트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주간 기념식 축하공연
- 가톨릭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대전대학교 외 독서축제 다수 축하공연
- 전국 초중고등학교 대상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고전 환상동화> 콘서트
- 강신주 철학자와 함께하는 인문학 콘서트 | 경북도청
- 서울북페스티벌 콘서트
- 2013 학교 독서교육대상 시상식 축하공연
- 경주문화재단 정호승 시인과 함께하는 서울 북콘서트
- 지식경제공무원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외 연수프로그램 다수 공연

2011-12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참석 도서관인 인사회 진행 및 단독 공연 (2010-2012)
- 이해인 수녀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이>(샘터) 콘서트 진행 | KT 올레홀 · 명동성당 코스트홀
- 3rd 디지털 싱글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이> 발표
- 지방행정연수원 & 지식경제부연수원 & 성심물산 본사 외 <창의와 상상> 북콘서트 다수
- 경기예술의전당 <김용택 시인과 함께하는 서울 콘서트>
- <2012 서울국제라틴페스티벌> “음악으로 떠나는 라틴아메리카 문학여행”
- 전국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북콘서트> 진행
- 유한김벌리 & 한국YMCA <신혼부부를 위한 북 콘서트>
- 창비 & 웅진씽크빅 외 주요 출판사 시상식 및 워크샵 공연
- 한국독서교육대상 시상식 축하공연
- 경기 북 콘서트 <책올림> 창작극 사라진 책을 찾아서

2009-10

- <2009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너와 나의 이야기 콘서트 진행
- 게스트: 신경숙 작가, 부지영 영화감독
- 영화 <지금 이대로그가 좋아요> OST ‘함께 할 날에’ 수록
- <2009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무비톡 뮤직톡 진행
- 게스트: <과속스캔들> 강형철 감독, <춤추는 동물원> 김효정 감독, 박성용 감독
- 서울 단독콘서트 | 샘터 파랑새극장
- 서강대학교故 장영희 교수 유고집 <이 아침 축복처럼 꽃비가>(샘터)발표 공연
- 1st 디지털 싱글故 장영희 교수 추모곡 <이 아침 축복처럼 꽃비가> 발표
- 2nd 디지털 싱글 <책의노래 서울> 발표
- (사)한국도서관협회 주관 <찾아가는 시낭송 음악회>
- 전국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낭독 공연
- 가톨릭대학교, 건양대학교, 대전대학교 외 다수 인문학 콘서트



콘서트 <다시, 봄>



콘서트 다시, 봄



어쿠스틱과 재즈, 클래식의 크로스오버 음악으로 다시 태어난 아름다운 우리 시(詩)

<다시, 봄>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먼저 사소하고 평범한 것들의 소중함을 되돌아보는 것(See).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스냅사진처럼 기억되는 소중한 일상의 추억들이다. 그리고 이 공연을 통해 얼어붙은 혹은 말라버린 우리의 감성에 봄을 되찾는 것(Spring).

모두에게는 각자 변함없는 영혼의 안식처가 돼준 시와 소설이 있다. 이 문학작품들이 음악으로 다시 태어난다. 한편의 아름다운 시는 그 자체로 노랫말이 되고, 멜로디에 실려 우리의 온몸으로 스며든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음악 3차 지원사업> 우수공연 선정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선정



콘서트 <어쿠스틱 베케이션>



콘서트 어쿠스틱 베케이션

잃어버린 일상의 낭만을 찾아줄게요

<어쿠스틱 베케이션>은 음악과 문학 등 예술작품을 통해 안식을 즐겼던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휴가제도인 '셰익스피어 베케이션(Shakespeare Vacation)'에서 모티프를 얻은 공연이다(빅토리아 여왕은 관료들에게 3년에 한 번, 한 달 남짓한 휴가를 제공했고, 그들은 이 기간 동안 셰익스피어 작품 중 5편을 정독한 뒤 독후감을 제출했다). 문학 속에서 음악을 발견하고, 음악 속에서 다시 문학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문학과 음악의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 지친 일상을 위로 받는, 짧지만 오래 기억될 휴식 같은 경험을 안겨줄 공연이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뮤즈라이브 대중음악 지원> 선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나는 예술여행> 선정
- 전국 찾아가는도서관 & 학교 북콘서트
- 제주 해비치아트페스티벌 제주인 페스티벌 선정





사랑, 노래가 된 문장들 마티네 콘서트

경주예술의전당 소공연장



북안樂 콘서트

현대백화점 신촌점 유프렉스 문화홀

한 편의 사랑시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노랫말이다. 문장에 실린 고백은 그 속에서는 유행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사랑의 고통과 기쁨, 슬픔, 후회 등의 감정이 담겨 있다. 슬프면서도 아름답고, 괴로우면서도 기쁜 감정들이 중첩된다. 그런 사랑이 우리 추억 속에 남는다.

문장을 읽을 때 그 모든 감정들이 되살아난다. 서울은 아름다운 문장과 시에 곡을 붙여 노래한다. 때로는 작가와 함께. 관객들은 가슴에 애송시를 품는다.

그리고 한 권의 책이 노래로 만들어진다. 가사와 멜로디로 새롭게 빛어낸 테마와 캐릭터. 같은 책을 읽는 독자들이 모여 노래를 함께 감상하며 리뷰의 마침표를 찍는다.



건강한 인문학 콘서트

음악으로, 강연으로
창의적 사고를 만나는 운동 이야기

- 천안시 정신건강센터 도솔공원 파크 콘서트
- 교육청 공무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
- 병원 및 도서관 학교 대상 콘서트
- 양산 인문학한마당 페스티벌 외 다수

많은 현대인들이 육체와 정신, 활동과 생각이 분리된 일상을 살고 있다. 학교와 직장 등 지적 능력 계발의 중요성만을 강조한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 바로 상상력과 창의성은 결코 두뇌 혼자만의 몫이 아니라는 것.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사고를 원한다면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야 한다. 굳어진 몸에 자유와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건강한 습관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운동이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을까? 역사에서부터 철학, 과학을 넘나드는 지적인 운동 이야기 그리고 미니 공연. 90분의 인문학 콘서트가 끝나면 당신은 어디로든 나가서 달리거나 체육관에 가고 싶어질 것이다.





정재승 작가의 열두발자국, 노경수 작가의 '하얀 검은 새를 기다리며' 이란...
2019년 서산시 『범시민 한 책 읽기 운동』
 일시 : 2019. 3. 9.(토) 10:00 장소 : 서산시청 대회의실



작가와 함께하는 한 책 읽기 선포식

매년 ‘올해의 책’을 선정, 시민들과 함께 읽기를 선포하는 ‘한 책 읽기 선포식’은 모든 시민을 책 한권으로 연결해주는 아름다운 축제이다. 서울밴드는 작가와 시민독자들과의 첫 만남을 보다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선정도서를 집중적으로 탐구-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과 연출이 이뤄지며, 전문 해설자의 진행(대담), 밴드의 콘서트 등을 통해 행사의 재미와 품격을 더한다.

- 서산시 범시민 한 책 읽기 선정도서 선포식
- 정재승 작가(교수)의 ‘열 두 발자국’
- 노경수 작가의 ‘하얀 검은 새를 기다리며’ 선정도서 선포식



진로와 인문학 나의 길을 발견하는 5가지 질문 콘서트

인문학으로 만나는 진로와 진로탐색 강연과 콘서트, 인문학적 사유의 공유를 통해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나의 잠재력은 무엇인가’ 등을 스스로 질문·대답한다.

2부 콘서트에서는 음악(시 노래 등)을 통해 문학적 감수성을 높인다.

-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인문학적 사유와 질문을 기반으로 한 진로탐색 계기 마련
- 입시에서 벗어나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스스로 꿈을 찾는 방법 공유
- 시노래 콘서트를 통한 문학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창의적 성찰 체험
- 전국 학교 대상 찾아가는 콘서트 진행

강연 현상필 대표

前 월간 해피투데이 편집장

現 서울 대표

- EBS FM <책으로 행복한 12시> 매주 목요일 2부
- “현상필의 당신 곁에 인문학” 진행
- 국립중앙도서관 <오늘의 도서관> 전문가 서평 칼럼
- 산림청 격월간지 <매거진 숲> 전문가 서평 연재

길 위의 인문학

길 위의 인문학의 북콘서트는 도서관이 찾아가는 방방곡곡 인문콘서트로 인문학 강연, 음악, 연극 등 다양한 장르가 결합된 인문학 콘서트를 체험할 수 있다.

문학이 바탕이 된 가사와 아름다운 노랫말의 대중가요, 연극으로 읽는 문학 명작, 내 인생의 명문장을 담은 캘리그래피 퍼포먼스, 사진보다 유쾌한 인물 캐리커처 참여 등의 프로그램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진행된다.

- 충북대학교병원 서관 직지홀
- 강원도 동해 동쪽바다 중앙시장
- 의성군 노인복지관 외

DISCOGRAPHY



7th Digital Single

우리는 서로에게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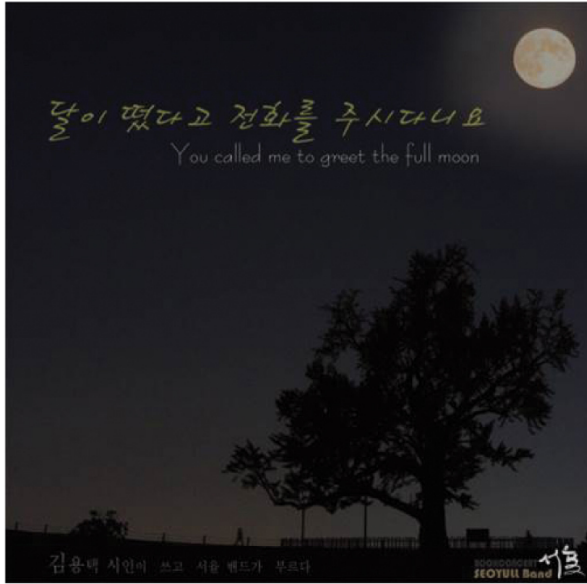
문태준 詩 서울 밴드 곡

‘우리는 서로에게’는 세상 모든 만물을 사모하는 문태준 시인의 7번째 시집 <내가 사모하는 일에 무슨 끝이 있나요>에 수록된 동명 시를 가사로 삼은 곡이다.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의 관계는 때때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환한 불빛 같고, 뿌리를 감싼 부드러운 토양처럼 보듬어준다. 모든 것이 사랑의 시선 속에서 소중한 아름다운 존재들이다.

사람들이 이 시를 연인을 위한 세레나데처럼 불러주길 바라는 마음을 곡에 담았다.

부드럽고, 서정적인 멜로디가 한껏 살린 보사노바 리듬의 노래이다.



6th Digital Single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2018

김용택 시 서울 밴드 곡

달이 밝다.

태양에 가려져있던 별빛처럼, 낮 동안 일상에 밀려나있던 감성이 차오른다. 우리가 영원히 달의 뒷면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때론 닿을 수 없는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이 달 빛에 밀려온다.

김용택 시인의 시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에 밴드 책의 노래 서울(書律)이 곡을 붙인 이 노래는 시에서 느껴지는 설렘, 환희 등의 정서를 평키하게 그려냈다.

리드미컬한 일렉트릭 피아노 연주에 빈티지한 일렉트릭 기타 사운드와 신디사이저를 첨가 해 서정시의 새로운 해석을 보여준다.



5th Digital Single

새로운 길 2018

윤동주 시 서울 밴드 곡

길은 우리들 삶의 은유이다.

늘 꽃길만 밟을 수도 없고, 번번이 황무지만 펼쳐지지도 않는다.

지난 과거는 보행자의 발자취를 닮았다. 지나갈 길 앞에서 모든 발걸음은 첫걸음이다. 매일 오고 가지만, 누군가는 언제나 새로운 길 이어서 첫걸음마다 항상 설렌다.

DISCOGRAPHY

정규 2집

그랑투르, 바람과 길과 눈 2015

- | | |
|--------------------------|------------|
| 01 바람과 길과 눈 <i>Title</i> | 06 Roxanne |
| 02 겨울 끝에서 (부제: 연탄길) | 07 꽃바람 |
| 03 자유롭지만 고독하게 | 08 우리1년 |
| 04 봄길 | 09 시인의 왈츠 |
| 05 사랑이란 | |

앨범의 주제는 '삶과 여행'. 타이틀 '바람과 길과 눈'은 삶과 여행의 공통점을 노래한다. 여행을 통해 만나는 낯선 풍경과 인연 등을 풍부한 시적 언어로 풀어낸다. 여행을 노래하며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자존, 삶에 대한 긍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은 시인의 눈을 빌린다. 이문재 시인의 동명의 시에 곡을 붙인 '자유롭지만 고독하게'는 극단이 만연한 세계에서 어떻게 중용과 자존을 지켜 나가야 하는가를 노래한다. '봄길(정호승 시)'은 길이라는 삶의 메타포를 통해 인생을 긍정하는 우리의 자세를 담고 있다.



수록곡 '꽃바람(김용택 시)'은 일상 속 문학의 아름다움과 긍정을 발견하는 순간의 사랑도 노래한다. 어쿠스틱 사운드에 클래식 스트링, 재즈 아티스트의 참여로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2010-2015

정규 1집

책 노래가 되다 2013

- | | |
|----------------------|------------------|
| 01 자전거 타고 노래부르기 | 07 어디엘 가도 네가 있네 |
| 02 당산 할매와 나 | 08 그녀는 예뻐다 |
| 03 잃어버린 일기장 | 09 나에게 그대는 편한 사람 |
| 04 넘어짐에 대하여 | 10 엄마를 부탁해 |
| 05 토닥토닥 <i>Title</i> | 11 사랑리뷰 |
| 06 새벽편지 | 12 마당을 나온 암탉 |



정규 1집은 어느 음반과 달리 '책을 노래로 읽어주는 오디오북'으로 주요 도서관 추천도서를 바탕으로 독자, 작가의 요청으로 만들었다.

* 네이버 '오늘의 뮤직' 2013년 1월 5주 '이 주의 후보작 선정.'

타이틀곡 '토닥토닥(김재진 시)' 외에도 '자전거 타고 노래 부르기(고운기)', '넘어짐에 대하여(정호승)', '나에게 그대는 편한 사람(용혜원)', 이해인 수녀의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이' 등 여러 시인들의 작품이 앨범의 모티프가 됐다. 이밖에도 '당산할매와 나(윤구병)', '잃어버린 일기장(전성현)', '마당을 나온 암탉(황선미)' 등 동화를 모티프로 한 곡도 수록돼있다.

DISCOGRAPHY



4th Digital Single

잠간의 생 2015

음악적 모티프가 된 책 <잠간의 생>(꿈꾸는 서재)은 김재진 시인의 어른을 위한 성장동화. 생의 의미와 사랑의 깊이를 탐구한다. 서울은 이 작품에 쓰인 핵심적인 문장들을 가져와 가사를 구성, 하나의 짧은 사랑 이야기로 만들었다.

3rd Digital Single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이 2011

이해인 수녀의 산문집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이> (샘터)를 모티프로 만든 곡. 봄의 풍경들과 이해인 수녀의 이야기를 가사로 담고 잔잔한 보사노바 리듬과 멜로디로 봄을 표현했다.



2nd Digital Single

책의 노래 서울 2010

타이틀곡 <책만 보는 바보>는 실학자 이덕무의 삶을 음악으로 그렸다. 서울은 안소영 작가의 동명소설에서 영감을 받아 곡을 만들었는데, 당시 이덕무가 겪었던 삶의 애환, 서자들의 설움, 시대의 바람소리, 고된 현실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독서의 즐거움을 서정적인 멜로디로 표현했다. 국악적 선율 위에 가야금과 해금을 이용해 극적인 느낌을 살렸다.



1st Digital Single

이 아침 축복처럼 꽃비가 2010

고(古) 장영희 교수의 <이 아침 축복처럼 꽃비가>(샘터)의 향기가 음악으로 되살아난다. 수록곡은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영희에게', 'with' 등 3곡. 천국과 지상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내용이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은 천국에서 보내는 오월의 안부를 담은 발라드. 장 교수가 이야기하던 기적의 의미를 희망 가득한 멜로디로 노래한다. '영희에게'는 지상에서 보내는 답가 형식을 취했다. 장 교수를 아끼던 이해인 수녀의 시에 잔잔한 멜로디를 덧붙여 장 교수를 추억한다. 'with'는 천국과 지상 모두의 축제가 컨셉이다. 신나는 왈츠로 반포4동성당 안젤루스 합창단 어린이들과 서울 멤버들의 코러스, 풍성한 반주가 한 데 어우러진다.

OST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19 함께할 날에 2009

부지영 감독, 공효진과 신민아 주연의 영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에는 최승현 음악감독과 재즈보컬 말로, 재즈 피아니스트 노성은이 참여했다. 서울은 19번 트랙에 수록된 '함께할 날'에 참여.





*“BOOK became Music”
Songs originated from literary works*

서울

(우)1706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역로 9, 시티동 502

T +82-70-4417-3165

M +82-10-6203-3166

E info@bookconcert.net

H www.bookconcert.net

www.facebook.com/seoyullcom

www.instagram.com/bookconcert_seoyull